

편법 판치는 민주 선거인단 모집

대리등록에 금품·조직 동원설까지

일부 자치단체장 개입 소문... 선거인단 20만명 넘어서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선거인단 명단을 확보해 대리등록을 해주는가 하면, 선거인단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주고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금권·조직동원 선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우호적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천의 당락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법 선거 유형=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거리에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선거인단 명부를 대리등록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캠프 관계자들이 일부 통장·이장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해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선거인단 명부를 확보하거나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

을 고용하는 행위, 가가호호 방문해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93조·113조·114조·115조에 위반된다.

다만, 현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 없이 선거인단 참여가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대리등록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부작용 왜=모바일 투표 경선방식이 문제다. 이번 경선에 참여할 우호적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후보 캠프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는 조작·금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원·주민 등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투표는 어떻게?=민주당은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민주당은 전국 120여

곳에 지역 후보 2명씩을 내세워 모바일 및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경선을 통해 최종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거인단 등록 방법은 콜센터와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접속 등 3가지이다. 투표방식은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 두 가지 방식인데,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투표 문자 수신 ▲본인인증(주민번호 뒷자리) ▲2명의 후보 선택 ▲투표 후보 재확인 순으로 하

면 된다.

현장 투표는 콜센터에 선거인단을 등록한 뒤 투표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현재 18만2624명이었던 선거인단 신청자는 이날 2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성경찰, 선거인단 모집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장성·함평·영광 선거구 A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장성경찰은 22일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 6대에 대한 분석을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분석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박모(17)군 등 5명이 선거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군 등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3층짜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4·11 총선 관련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사무실에서 10명의 이름·휴대전화번호가 적힌 A4용지를 확보했으며, 이날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시급 4530원을 받고 선거인단 명부를 대신 등록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리등록 행위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군 등이 일을 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점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선포

22일 광주 동구 금남로 무진관에서 광주YMCA 회원들이 4·11 총선에서 지역의 참일꾼을 찾자는 취지 아래 ‘2012 세상을 바꾸자 운동(세바꾸)’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기간 동안 2012명의 ‘생애 첫 투표인단’을 조직해 청년층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불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정책백과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공천 호남 면접 왜 늦어지나

후보들 설왕설래... 당에선 “빠르면 내일 시작”

당초 22~23일께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을 위한 호남지역 후보 면접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 후보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매일 오전 10~11시부터 밤 11시까지 후보면접을 하고 있다”며 “23일은 서울지역 후보면접을 하다가 24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관계자는 “면접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애초 생각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차질 우려·이단아·이훈평·정규영·정의용·한대희·박철수·최성용 등이다.”

이처럼 예측된 일정보다 면접일시가 늦어지는 것은 면접시간이 후보당 5분가량이나 후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되면서 예정보다 길어지는 때문으로 보인다. 또 면접 틀림이 공천과 관련된 다른 작업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의도한 일정대로 진행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공심위 측 관계자는 “당직자들이 언론과 후보 측의 면접 일정 문의에 대해 답하면서 편의상 상식적으로 예측된 일시를 알려줬는데 이를 확실한 면접시기로 오해, 마치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시장·군수 보선

민주 18명 공천 신청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은 4·11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남지역 3곳의 시장·군수 보선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18명이 접수

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장 공천 신청에 10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강진군수와 무안군수 후보에는 각각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전남에서는 4·11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이 사퇴한 순천시와 강진·무안군 등 3곳에서 보선선거가 치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김정길 등 40명 ‘영남벨트’ 바람몰이

민주 영남지역 1차 공천자 사실상 확정

민주통합당은 22일 문재인 상임고문, 김부겸·문성근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전 최고위원 등을 19대 총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 또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제대 여사를 남편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에 전락공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영남지역 1차 공천자 40명과 전락공천안을 의결, 발표했다. 이 안은 24일 당부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부산에서는 단수 신청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사상구), 김영춘 전 최고위원(부산진갑), 이정환 전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남구갑), 전재수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북강서갑),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사하갑) 등 5명이 공천을 받았다.

또 문성근 최고위원(북강서을),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중동구),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부산진을), 노재철 호서대 교수(동래), 박재호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남구을), 장항숙 전 의원(금정), 김인회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연제) 등 7명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천장을 따냈다.

민주당은 이날 김비오 부산시당 대변인이 단수로 신청한 영도구의 공천자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됐다.

경남에서는 장영달 전 의원(의령·함안·함천)과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양산), 김성진 전 청와대

행정관(마산갑) 등 8명이 분선 진출에 성공했고,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울산에서는 심규명 전 녹색에너지추진시민포럼 대표(남구갑)만 공천자로 확정됐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최고위원(수성갑), 임대운 전 동구구청장(동구갑) 등 9명이 후보 적합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포항남·울동), 안경환 지역위원장(구미갑) 등 10명이 공천 판정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경남 김해을, 진주갑 등 10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치러 공천자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됐다.

경남에서는 장영달 전 의원(의령·함안·함천)과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양산), 김성진 전 청와대

청, 강원, 수도권, 호남 등 순으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4·11 총선 공천과 관련, 중앙당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성남 의원이 맡았고 위원 14명은 김동수·김해에·박옥희·백안승·박진섭·안 식·유재욱·이단아·이훈평·정규영·정의용·한대희·박철수·최성용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 2TV 본사 광주 유치 하겠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공약 발표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KBS 2TV 공영방송 본사 광주 유치를 비롯한 15개 광주지역 총선공약(안)을 마련했

다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최근 3차례에 걸쳐 지역정책개발단 회의를 열고 지역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KBS 2TV 공영방송 본사 광주 유치 ▲국립문화예술인 응

복합지원센터 건립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 건립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R&D특구 독립법인 추진 ▲중견 스타트업 육성 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국 산학연관 종합기술거래소 설치 ▲기아차 증산을 위한 부지확보 및 생산설비 등 자동차 150만대 산업 육성 ▲산학연관 융복합 연합캠퍼스지구 조성 ▲광주 차세대산업 IT 융합센터 건립 등의 공약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광천동 일대 뉴타운 및 국제업무 지구 개발’과 ‘국립 병설 학교폭력 예방교육센터 건립’,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518개 열린 행복화장실 지정 운영’ 등도 제시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달 말 중앙당과 논의를 거쳐 19대 총선 공약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광주발전의 비전과 청사진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23일 오전 11시 시장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총선 예비후보자, 고문·자문 등 주요당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 현판식을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사(양성과정) 모집**

과정	모집인원	과정	모집인원
신문활용 논술교실	각 30명	창의적 미술교실	각 20명
사진활용 학습교실		창의적 수학교실	
자기주도 학습교실		신나는 음악교실	
원어민참여 영어교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즐거움 체육교실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3과목 동시 자격증(토요일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사+자기주도적 학습 지도사+진로탐색상담사)		즐거움 한자교실	20명

접수기간 : 2012년 2월 6일(월)~2월 24일(금)

- 모집대상 : 전문대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 전공자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3일(토)까지
- 교육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수강료 : 29만원(자격증 비용 별도)
- 접수방법 : 알리오TV(www.alioTV.kr) 홈페이지 참조
- 활동지역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특전 : 1. 광주일보 수료증 발급
2. 성적우수자 초·중교 방과후 교사 취업 우선지원
3. 수료시험 이후 방과후 교사 자격증 수여

※자격취득 후 진로 : 창업지원, 방과후교사,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강사 등으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63 광주일보사 주관: ADEC 광주일보사 후원: (주)아데크

문의전화. 062-220-0555 H.P 018-693-6604